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산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58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병 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국산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 상황	2
2. 부칙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태년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7. 3.
3. 회 부 일 : 2024. 7.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세계 각국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령에서 신용공여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40조원의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증액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한국산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

□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자본금)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u>30조원</u>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제5조(자본금) ① ----- ----- <u>40조원</u> ----- ----- -----.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 정관에서는 자본금 규모를 30조원으로 정하고 있음¹⁾²⁾.

○ 한국산업은행은 법정자본금 이내에서 정부가 출자하는 납입자본금을 기반으로 산업의 개발·육성 및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정책금융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1) 발행주식 총수 60억주×5,000원=30조원(주식으로 분할하여 표시)

「한국산업은행 정관」

제2장 자본금과 주식

제6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① 이 은행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0억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현행법은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5한도로 제한하고 있어, 자본금 규모에 따라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결정됨.

-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1995년 5조원 규모였으나³⁾, 산업자본에 대한 수요 증가, 인플레이션 및 위기 대응 필요성 등으로 인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아래 표와 같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현행 법정자본금 30조원은 2014년 12월에 개정된 것임.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 내역>

시 기	규 모	개정사유
'95. 1월	5조원	■ 장기설비금융수요, 금융국제화에 대비
'98. 4월	10조원	■ IMF금융위기 상황下 시장안정자 역할 수행
'09. 5월	20조원	■ 민영화 이후, 글로벌 IB 등 업무범위 확대
'14.12월	30조원	■ 통합산은 출범을 통한 정책금융 강화

주: 2014년 12월 이전에는 한국산업은행 자본금을 정부가 전액 출자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정부가 100분의 51이상을 출자하도록 함.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각 국가가 자국의 첨단산업지원을 위해 정부재정 뿐 아니라 정책금융을 통한 대규모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현행 법정자본금 한도로는 자본금 확충이 제한되어 정책자금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2024년 7월말 현재,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은 약 26조 3천억원으로, 현행 법정자본금 30조원 대비 87.6% 수준이며, 법정자본금한도까지는 약 3조 7천억원의 여유만이 있을 뿐임. 2022년부터

3) 1995년 이전 법정자본금: 1953년 4억원, 1961년 2천억원, 1968년 7백억원, 1969년 1,500억원, 1974년 3,000억원, 1977년 6,000억원, 1981년 1조원, 1988년 1조 5,000억원, 1995년 5조원

2024년 7월까지 정부출자 규모가 4조 4,300억원⁴⁾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국산업은행의 현행 법정자본금 한도는 과거 정책 금융 상승 추이를 고려할 때에 2~3년 내에 소진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으로, 한국산업은행의 중장기 자본여력을 확대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책금융 수요에 대해 적기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첨단산업지원을 위한 글로벌경쟁이 격화⁵⁾된 가운데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 확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 참고로, 법정자본금 증액은 향후 자본금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미리 한도를 확보하는 의미이며, 실제 자본금 확충은 현금출자 또는 현물출자⁶⁾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중 현금출자는 국회 예산안 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반면, 현물출자⁷⁾는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고 있음. 2024년 7월 기준, 한국산업은행 자본금은 약 26조 3천억원으로 이 중

4) BIS 비율 제고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 현물출자(3조원) 포함. 세부내역은 【참고자료 1】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연도별 출자내역 참조

5) (미국) '24.5월 현재 390억달러 중 9개 기업에 대해 295억달러 지원 예정
(일본) '24.2월 현재 TSMC, Micron, Kioxia 등에 대해 1.7조엔 지원 예정

6) 현금출자시 10배까지, 현물출자시에는 약 6배까지 대출가능.

7)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예: (주)한국전력공사 주식) 출자.

59%에 해당하는 약 15조 6천억원이 현물출자에 의한 것으로, 상당 부분의 자본금 출자가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첨단산업지원 및 혁신생태계 조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대규모 모험자본이 필요한 탄소중립 및 기후기술 지원확대, 지역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특별자금 및 특화펀드 조성 등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의 자본여력을 확대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며, 법정자본금 한도는 50조원 수준까지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법정자본금 개정이 약 10여년 주기로 일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10년 정도의 필요 자본량만큼 법정자본금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지원 확대가 요구되는 첨단산업육성 외의 자금 수요가 현재 추세로 증가하고⁸⁾, 이익잉여금 및 배당성향이 현재 수준인 경우 2033년까지 납입자본금 20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임.

- 세부적으로는 ① 10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육성과 ②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적 위기상황시 시장안정 기능 등을 수행을 위

8) 한국산업은행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영위기업 앞 90조원의 시설자금 저리대출, 유망기술 보유 기업 앞 10조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며, 우선, '25년 정부 증자(2조원)를 통해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 프로그램(17조원)」 신설하여 반도체 산업의 압도적 제조역량 구축을 지원할 예정임(금융위원회 제출자료)

해 각각 1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 여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음.⁹⁾

□ 이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도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헬스 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할 계획을 밝히면서, 이를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이 필수적이며, 정책자금 공급 확대와 함께 산업은행의 BIS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자본금 확충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다만,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증액 여부 및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한국산업은행의 최근 5년간 대출, 보증,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잔액 기준) 지난 5년간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총 268.6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2019년 이후 42.9% 증가한 규모임.

9) 【 최근 10년 정책금융 분야별 증자현황('15~'24년) 】

(단위: 조원)

구 분	혁신성장 지원	기후위기대응	경제활력·시장안정 등	합 계
증자금액	2.49	0.19	8.46	11.14
지원금액	27.99	0.38	75.53	103.90
주요사업	뉴딜·혁신성장펀드, 소부장펀드 조성 등	KDB탄소넷제로 프로그램 신설	기업투자 촉진, 금융시장안정화 등	

< 한국산업은행 최근 5년간 대출, 보증, 투자 잔액 규모>

(단위: 조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대출	128.6	145.7	158.6	177.3	178.7
보증	8.8	8.3	114	14.2	15.8
투자	50.4	59.8	698	69.9	74.1
총계	187.9	213.7	239.8	261.4	268.6

자료: 한국산업은행 제출자료

- 이와 같은 한국산업은행 등의 대규모 정책자금은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특정 산업이나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고, 경제위기시 자금을 공급하여 산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나,

정책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해당 부문으로의 원활한 민간자금유입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하여 유희 민간자금의 흐름을 왜곡함으로써 부동산 경기 과열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정 산업에 대한 불균형적인 보호는 시장 원리에 따른 구조조정 및 민간의 혁신을 유인하지 못하여 장기적으로 시장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자본금 증액 시점 및 규모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그 외에, 한국산업은행 출자의 상당 부분(59%)을 차지하는 현물 출자가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정부의 자체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국회는 법률안 심의를 통해 자본금 총한도만 결정한다는 점

에서 총 한도 규모를 어느 정도 증액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부칙

-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한국산업은행이 법 시행일 6개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산업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부칙과 관련하여 첫째,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은 법정자본금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정관을 개정하여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규모를 확정한다는 점에서, 법정자본금 한도를 확대하는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이후 한국산업은행이 정관을 변경하는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이 법 시행일 후 6개월 이내(공포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법정자본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법정자본금 상한이 상향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정관이 이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어서 정관을 개정안에 따라 변경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1】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연도별 출자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정부출자				적립금 전입 등	감자	자본금	용 도
	현금출자	현물출자	경유출자	소계				
'54~'70	76	191	113	380	126	-	506	<현물출자내역> '87이전 대한중석 주식 등 '87 주공, 관광공사 등 1,000 '89 한전,주공,수자원 2,500
'71~'80	918	569	2,125	3,612	936	-	5,054	
'81~'89	550	3,732	-	4,282	1,258	-	10,594	
'90	-	275	250	525	1,300	-	12,419	한전 275 (한국중공업경영정상화) 한국중공업앞 경유출자 250
'91	-	-	-	-	1,001	-	13,420	
'92	160	-	-	160	-	-	13,580	정책자금 효율적 지원 400
'93	240	-	-	240	-	-	13,820	
'94	200	115	-	315	-	-	14,135	종합화학 115 (공기업민영화)
'95	-	-	-	-	2,000	-	16,135	
'96	-	-	2,000	2,000	-	-	18,135	도로공사앞 경유출자 2,000
'97	-	6,600	3,000	9,600	2,000	-	29,735	한전 5,000(부실채권기금 용자), 담배인삼공사 1,600 (BIS제고), 도로공사앞 경유출자 3,000
'98	8,500	40,670	5,000	54,170	-	△42,188	41,717	구조조정기금 7,000, 중견·중소지원 1,500 주택공사,토지공사 등 40,670 (BIS제고) 도로공사앞 경유출자 5,000 *IMF사태 발생에 따른 재무건전성 개 선을 위한 감자
'99	2,000	6,000	-	8,000	-	-	49,717	인프라펀드 등 2,000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6,000 (한국투신앞 출자)
'00	1,000	-	-	1,000	-	△9,598	41,119	지방이전기업 지원 1,000 *대우자동차 매각지연 및 한국중공업 민 영화 관련 주식매각 손실에 따른 감자
'01	500	30,000	-	30,500	-	-	71,619	한국중공업 손실보전 500 한전 30,000 (한국전력 민영화)
'03	800	-	-	800	-	-	72,419	지방경제활성화펀드 800
'04	-	10,000	-	10,000	-	-	82,419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10,000 (성장잠재력 확충 및 BIS비율 제고 등)
'08	-	5,000	-	5,000	-	-	87,419	한국도로공사 5,000(경제난국 극복대책)
'09	9,000	-	-	9,000	△4,000	-	92,419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KoFC/지주 분할
'10	100	-	-	100	-	-	92,519	설비투자펀드지원(산은지주경유출자)
'13	100	-	-	100	-	-	92,619	설비투자펀드지원(산은지주경유출자)
'14	200	-	-	200	58,985	-	151,804	설비투자펀드지원(산은지주경유출자) 200 통합에 따른 구조조각 및 정부앞 신주발행
'15	400	20,000	150	20,550	-	-	172,354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자본보강 20,000 설비투자펀드지원 400 한국해양보증보험 출자금 150

구 분	정부출자				적립금 전입 등	감자	자본금	용 도
	현금출자	현물출자	경유출자	소계				
'16	2,877	-	200	3,077	-	-	175,431	설비투자펀드지원 1,500 한국해양보증보험 출자금 지원 200 기투자 프로그램에 따른 자본보강 1,377
'17	800	2,500	650	3,950	-	-	179,381	한국선박해양 출자금 지원 2,500 4차산업혁명 파트너자금 지원 800 한국해양보증보험 출자금 지원 650
'18	-	-	1,700	1,700	-	-	181,081	성장지원펀드 출자금 지원
'19	4,550	-	1,000	5,550	-	-	186,631	기업경영정상화 지원 4,000 성장지원펀드 출자금 지원 1,000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400 환경안전투자 지원 150
'20	7,776	-	13,250	21,026	-	-	207,657	기업투자지원 프로그램 1,255 성장지원펀드 조성 2,500 기업구조혁신펀드 750, 금융시장안정화 16,521
'21.1	-	-	5,100	5,100	-	-	212,757	뉴딜펀드 5,100
'21.6	3,033	-	3,075	6,108	-	-	218,866	소부장펀드, 구조혁신펀드 및 기업투자지원 금융시장안정화 방안(COVID19 관련)
'22.2	200	-	3,720	3,920	-	-	222,786	뉴딜펀드 3,720, KDB 탄소 넷제로 200
'22.7	800	-	2,280	3,080	-	-	225,866	뉴딜펀드 2,280, KDB 탄소 넷제로 800
'22.12	-	5,650	-	5,650	-	-	231,516	한국토지주택공사 5,650 (BIS비율 제고)
'23.3	-	4,350	-	4,350	-	-	235,866	한국토지주택공사 4,350 (BIS비율 제고)
'23.5	200	-	1,000	1,200	-	-	237,066	혁신성장펀드 1,000, KDB 탄소 넷제로 200
'23.10	200	-	2,000	2,200	-	-	239,266	혁신성장펀드 2,000, KDB 탄소 넷제로 200
'24.3	-	20,000	-	20,000	-	-	259,266	한국토지주택공사 20,000
'24.4	-	-	840	840	-	-	260,106	혁신성장펀드 440, 지역활성화투자펀드 400
'24.6	250	-	960	1,210	-	-	261,316	혁신성장펀드 960, KDB 탄소 넷제로 250
'24.7	250	-	1,600	1,850	-	-	263,166	혁신성장펀드 1,000, 지역활성화투자펀드 600, KDB 탄소 넷제로 250
합 계	45,680	155,652	50,013	251,345	63,606	△51,786	263,166	

※ 경유출자: 정부가 정책펀드 등에 출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한 경우

【참고자료 2】 한국산업은행 자본금 변동내역 및 금융지원 현황
(2014년 이후)

(단위 : 억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법정자본금			300,000									
납입자본금			151,804	172,354	175,431	179,381	181,081	186,631	207,657	218,865	231,516	239,266
한도소진률			50.6	57.5	58.5	59.8	60.4	62.2	69.2	73.0	77.2	79.8
금융지원현황	대출	집행	462,886	576,064	554,925	586,239	597,151	657,110	796,999	771,342	743,129	803,923
		잔액	932,881	1,240,026	1,237,348	1,220,342	1,216,374	1,286,395	1,456,720	1,586,101	1,772,568	1,786,967
	보증	집행	35,872	74,802	25,481	29,593	39,598	46,022	41,470	68,025	81,046	54,384
		잔액	88,974	128,990	109,727	83,921	86,400	88,389	82,809	114,396	142,413	158,018
	투자	집행	61,900	99,627	61,685	58,198	75,863	72,131	113,573	60,981	73,107	61,039
		잔액	236,871	576,197	510,119	485,979	507,304	504,268	597,812	697,604	698,542	740,612
	총계	집행	560,658	750,493	642,091	674,030	712,612	775,263	952,042	900,348	897,282	919,346
		잔액	1,258,726	1,945,213	1,857,194	1,790,242	1,810,078	1,879,052	2,137,341	2,398,101	2,613,523	2,685,597
당기순이익			1,835	△18951	△36411	4,348	25,098	4,457	4,875	24,618	4,650	25,089
배당금			462	-	-	1,471	1,449	1,120	2,096	8,331	1,647	8,781
BIS비율			13.36	14.18	14.86	15.26	14.80	14.05	15.96	14.88	13.40	13.70

문 의 처

02)6788-5104